

다연산업

일본에 이어 유럽으로 수출 확대

국내 순수기술로 외국에 축산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신기술벤처기업 다연산업(대표 금재호)은 수출시장을 일본에서 유럽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FRP자동온수급수기, 축분건조기, 자동목걸이 등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다연산업은 수출시장을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로 넓혀 나가기로 결정했다.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유럽시장에 제품을 수출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후 세계로 수출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축분건조기와 자동온수급수기 등을 수출하여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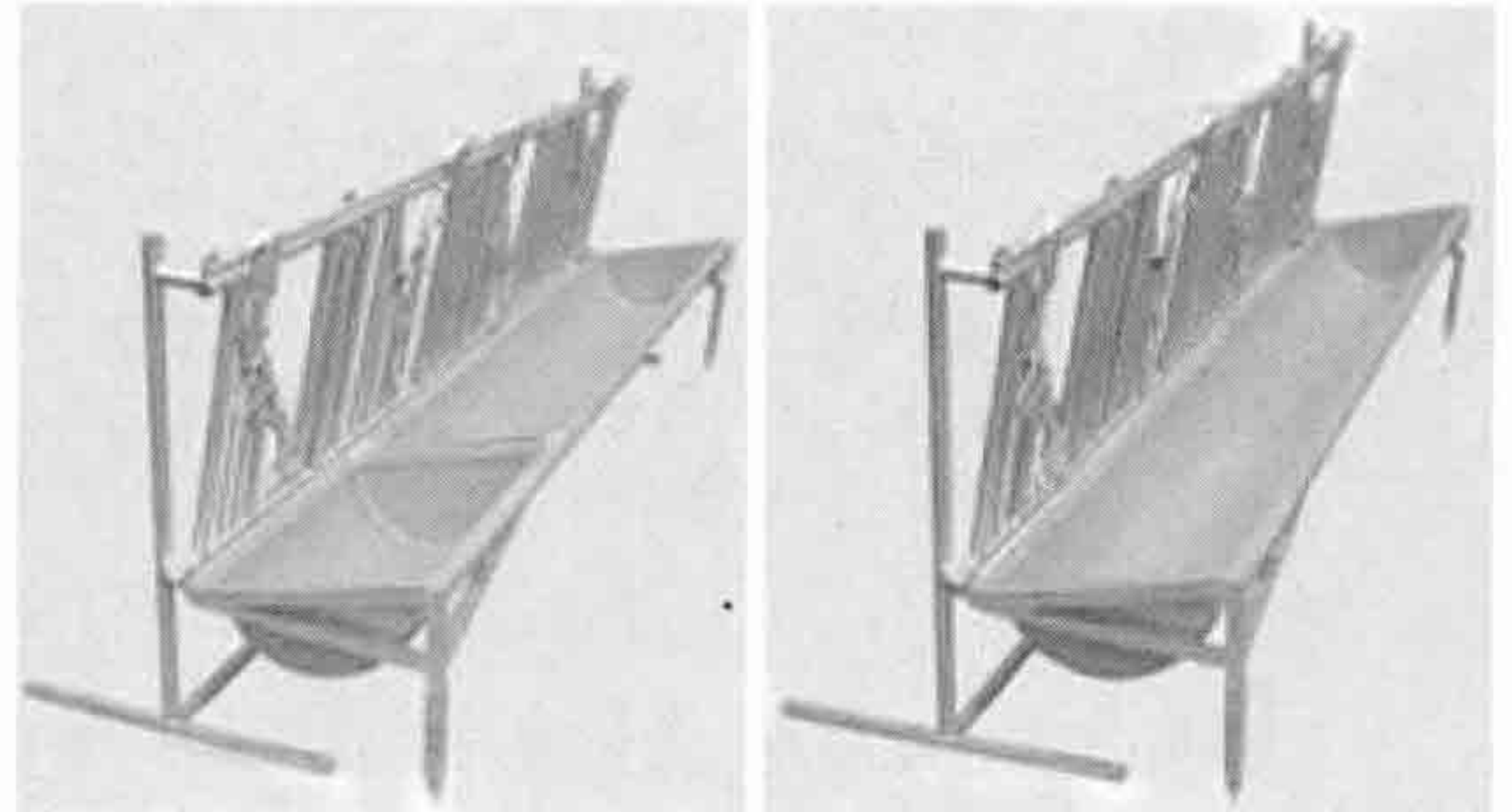
다연산업 금재호 사장은 “사업의 활성화로 발생되는 수익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축산농가에 환원하여 국내 축산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축산농가를 한번 더 생각하는 기업’ 이념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금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기자재를 선택하는 기준을 단순한 지역연고나 가격위주에서 벗어나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부실한 제품이 농가에 공급되어 피해를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Q마크 품질보증,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신기술벤처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품질경영인증업체 등에서 기술력을 공인 받고 있는 다연산업은 최근에 착유실, 작업장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저소음 건조기, 이끼가 끼지 않는 급수기를 개발하는 등 매출에 일정부분을 연구분야에 투자하여 농가

가 필요로 하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제품 ‘다연사료통’ 출시



다연산업은 제품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투자로 또 다시 신제품 ‘사료통’을 출시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사료통은 육성우용과 번식우·거세우·젖소용 2종류로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제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문의와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신제품 ‘사료통’은 FRP재료로 견고하고 반영구적이며 청소가 용이할 뿐 아니라 겨울철에는 소가 차가움을 느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끼지 않아 위생적인 제품이다. 특히 개체별 분리가 되므로 독식방지를 할 수 있으며 소가 사료를 흐트러뜨리지 않아 손실에서 올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연산업의 기술개발제품 우수성 홍보 및 구매상담회 참여

다연산업(대표 금재호)은 지난 5월16일 경기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구매상담회’에 초대받고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편 공공기관과의 제품 구매에 대한 상담시간을 가졌다.

이날 다연산업은 경기도, 농촌진흥청, 수원시, 용인시, 한국농촌공사, 인천지방조달청, 경기도교육청 구매관계자와의 상담을 통해 다연산업 소개와 함께 다연제품 설명 등 상호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금재호 대표는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제품을 제대로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이번과 같이 실질적인 공공기관의 구매관계자와 직접 상담을 통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될 때 구매나 입찰에서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만남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 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성양행

‘팜세이프’ 베트남 수출



지난달 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인플루엔

자(AI)로 인해 축산물에 대한 기피현상 및 인체감염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됨과 동시에, 농림수산부 등 관련기관 및 국내 축산업 전반에 걸쳐 초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성양행(대표 강춘성)은 국내 특허소독제로 광범위 소독력이 입증된 팜세이프의 베트남 수출을

이루는 성과를 내어 또 다른 희망을 안겨 주었다.

또한 우성양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소독제인 팜세이프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산 지역 일원의 축산농가에 1000만원(3톤 물량)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선 최초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소독약제로 허가받아 수출하는 팜세이프는 DDAC(디텍실 디메틸 암모늄클로라이드) 및 천연 유카추출액의 사르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한 동물용 소독전문약품으로 기존 4급암모늄 소독제에 비하여 유기물내에 침투 효과가 우수하며, 축사내 악취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특허제품(제10-0218093)이다.

이번 국내제조 특허 소독제인 팜세이프의 베트남 수출은 “파키스탄” 수출에 이어 이루어진 결과로 우성양행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

우성사료

의성마늘소 브랜드 경영체 실증자료 소개회의 실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5월 13일 경북 의성축협에서 의성마늘소 브랜드 경영체(회장 박효발)의 우수한 성적을 소개하는 실증회의를 실시했다.

지역내 한우경영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한우거세우 303두를 출하한 결과 1등급 이상 93%(전국평균 71%), 1+등급이상





70%(전국 평균 39%)로 전국 평균 대비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여 주어 최근 곡물가

상승과 미산 쇠고기 수입이 압박한 상황에서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의성마늘소는 2001년부터 의성군, 의성축협, 건국대동물연구소, 우성사료, 한우농가 등이 협력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로 모범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의성마늘을 이용한 기능성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실용화 했다.

의성마늘소는 의성마늘을 사료에 첨가해 급여하여 일반쇠고기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출하전 초음파 육질측정을 통해 선별 출하하고 있으며 우성사료의 더한우마루 급여프로그램과 사양지도로 관리되고 있다.

의성마늘소는 CS유통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굿모닝마트와 의성축협 직판에서 판매되고 있다.

낙농 우수농장의 날 행사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이 지역낙농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새용성목장(대표 이용동)은 검정농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성적으로 고곡가 시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새용성목장의 이용동 사장은 “82년 낙농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

려움이 많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고 회고하며 특히 “유사비가 70% 대를 육박하는 현재의 고곡가 시대의 경쟁력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을 높이는 것”라고 강조했다.

연 평균 24두를 착유하고 있는 새용성목장의 지난 1년간의 성적을 살펴보면 평균유량 37kg, 유지율 3.9%, 체세포 8만8천, 평균산차 2.7산이며 검정농가 평균 대비 성적이 월등히 높았으며 같은 두수를 기준으로 수익성 환산시 연간 5천 3백만원의 추가수익을 보여주었다.

이용동 사장은 이러한 성적과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건물섭취량을 최대화하고 에너지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등 개체별, 능력별 사료급여관리를 실시했으며, 둘째, 건유기 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셋째, 젖소의 5대 기관을 튼실히 하는 오웰빙 사료와 우성사료 서비스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러한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평균산차를 3산까지 끌어올려 번식효율을 더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동조물산

보림목장 오픈데이 행사 개최

보림목장(대표 박충남) 오픈데이 행사가 지난 5월 21일 전남·북 낙농가와 각계단체의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동조물산(주)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영

암군의회 신낙현 의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Lely 아스트로넛 A3 로봇착유시스템을 포함한 최첨단설비를 갖춘 보림목장 오픈데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보림목장은 2008년 2월 21일 (주)동조물산의 LELY 로봇착유시스템(Astronaut A3)을 도입하여 첫 가동을 하였고, 각종 첨단기계화시설 설비를 갖추어 현재 50두의 착유두수로 하루 1,600ℓ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박충남 대표는 이날 인사말로 국내 낙농의 현실과 낙농의 전업화를 역설하면서 목장의 첨단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후계자 두 아들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장남 박정재 씨는 현재 축산대학을 졸업하여 낙농2세 수업 중에 있고, 차남은 박근재 씨는 목장형유가공을 배우기 위해 현재 호주 유학 중에 있다.

한동

“ILDEX VIETNAM 2008” 박람회 참가

(주)한동 (대표이사 이원규)은 지난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ILDEX VIETNAM 전시회에 참가했다. 중국, 태국, 터키 등의 VIV 국제 박람회를 참가해 왔던 한동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축산, 수산



의 주 시장으로 성장하는 베트남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한동은 기존 거래하는 수산거래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가졌으며, 축산시장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 홍보, 해외 거래선 발굴에 주력했다. 기존의 국제전시회와는 달리 이번 베트남 전시회는 베트남 현지의 관계자들이 주력으로 상담하여,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고 한동제품의 홍보,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소중한 장이 되었다.

박람회 장 방문객 중에는 수산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바이오웰을 통한 환경개선과 생산성증가 방안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베트남 축산시장의 관계자들은 국내시장에서도 우수한 품질과 효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샷액, 프로샷 300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선진축산에 적합한 코코바이오는 베트남 현지 축산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주)한동은 동남아시아에서 축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시아시장 및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일덱스 베트남 전시회를 통하여 향후 베트남의 신규 거래처 확보를 비롯하여 수출품목의 확대, 거래선 증가, 수출액의 증가가 기대된다. ☺